

사회일반

미등록 오토바이 대학가 ‘무법질주’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입력: 2022-07-27 00:00:00 (05면)

번호판 없이 무보험으로 운행
시민 안전 위협 불구 단속 한계
교내·주책가버려진 채 방치도

◇26일 강원대 교내 주차장에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방치돼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가 대학가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적 오토바이가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강원대와 한림대 일대에 주차된 오토바이 50대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21대가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았다.

대학생 A(22)씨는 “오토바이 연식이 10년도 넘어 구매 가격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다닌 3년 동안 한번도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등록 오토바이 대부분은 학과 선후배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안 돼 피해 보상이 쉽지 않고 운전자가 보상을 두려워해 뺑소니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내 주차장과 대학 인근 주택가 골목 곳곳에는 오토바이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버리고 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방치되며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엔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며 “주야간 순찰을 통해 대학가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